



일회용품 사용문제 시민 · 기업 협력 필요

김태수 /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1. 문제 제기

지난 2월, 환경부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재활용 촉진법) 시행규칙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포하자 사회 각계에서 커다란 반향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규제 대상이 될 업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하였고, 언론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대변하여, 이 법이 문제가 많았던 국민연금 전국민 확대 방안과 같이 졸속과 탁상행정이므로 시행을 유보하여야 한다고 받아쳤다. 한 동안 이러한 움직임은 힘을 얻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으로 믿어진 게 사실이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이하 쓰레기 협의회)는 법 강화가 무산되는 것은 우리나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무산시키는 것으로 보아 강력한 대처를 하기로 결정하고 법 지지 성명서, 법 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일회용품 시민감시단」을 발족하는 등 제반 노력을 경주하였다.

97년 10월에 결성한 쓰레기협의회는 대량생산, 대량 소비가 만연한 현실 사회에서 쓰레기 문제는 범국민운동이 아니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를 인식하고 이 운동에 시민환경운동의 힘을 집중하기로 결의하였다. 구체적으로, '86
우리 나라 쓰레기 처리 방법은 크게 매립에 의

존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심한 자원 낭비를 불러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님비(NIMBY)현상으로 불리며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로 매도당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납세자의 정당한 환경권 주장으로 이해하기도 하여 풀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그리고 매립 방식은 만성적인 매립지 부족 현상을 가져와 국토 이용의 효율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 정부는 쓰레기 매립 처리의 비율을 점차 줄이려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2. 일회용 사회의 딜레마

우리 나라 쓰레기 문제는 소비사회가 불러온 병폐다. 급속한 경제 발전을 구가한 한국 경제는 사회 생활의 양상을 크게 변모시켰는데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된 도시생활은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 진출 확산 등 생활상의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다. 생활양식의 변화는 소비구조의 변화를 촉발하였는데 소비구조의 변화는 편리함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달하여 일회용 사용을 크게 증대시켰다.

일회용은 생활 곳곳에서 사용되어 생활의 편의와 위생이라는 가치를 충족시켜 주는 것으로



써 자리잡은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일회용품 사용은 엄청나게 불어났고 사용후의 처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플라스틱은 다양한 소재를 총칭하는 것으로서 약 100여년 전, 석유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서 합성해 만든 화학합성소재로서, 천연소재의 대체용품으로 첫선을 보였다. 플라스틱의 등장은 철기시대의 종말과 고분자 시대로의 진입을 알리는 재료혁명의 시작이었다. 오늘날에는 일상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자, 항공, 우주 부문에 이르기까지 각종 첨단 산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만큼 유용한 소재의 하나이다. 또한 석유 및 천연가스에서 플라스틱을 합성해내는 산업 자체가 석유화학산업으로서 금세기에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인 산업분야의 하나로서 정착되었다.

플라스틱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인류에게 애용되는 소재가 된 것은 그것이 이제까지 인류에게 알려져 사용되어 왔던 소재들보다 여러 가지 점에서 뛰어난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좁처럼 부패하거나 변질되지 않으며, 가볍고 튼튼하고, 전기나 열을 잘 전달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해 대량 생산이 용이하며, 제품 가공이 용이하고, 약품에 의해 영향을 잘 받지 않으며, 다양한 색상으로 착색이 가능하고, 일단 착색되면 잘 탈색되지 않으며, 다른 물질과 함께, 혹은 서로 다른 플라스틱 종류끼리 복합 가공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물리화학적 특징으로 인해 플라스틱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져 온 금속이나 도자기류, 목재, 천연섬유 등을 빠른 속도로 대체해가 현재 각종 공업용품에서 일상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개발속도와 사용증가 속도가 다른 산업의 발전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그러나 사용될 때 그렇게 큰 장점으로서 부각되었던 이러한 특징들이 폐기된 후에 플라스틱을 골치 아픈 소재로 만드는 요인들이 되기도 한다. 부패가 어렵기 때문에 매립했을 경우, 혹은 자연생태계 중에 산란되었을 경우 언제까지나 남아 있어 쓰레기 매립지 부족 현상을 초래하고, 또한 토양 속에서 혹은 수중에서 생태계의 흐름을 차단하여 많은 생물의 생육을 저해하며, 특히 하천이나 호소 속에 가라 앉으면 수중의 증금속 침전을 방해하여 수질오염을 가속화시킨다.

가볍다는 것은 무게에 비해 많은 부피를 차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바로 쓰레기 중에 많은 부피를 차지하여 매립지 부족을 가속화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양한 용도로 대량생산으로 얼마든지 풍부하게 쓴 후, 이것을 회수하는 비용보다 새로 만들어 쓰는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회수와 재활용에 노력을 들이지 않게 된다. 다양한 색상으로 착색이 가능하므로 대개의 착색해서 쓰는데, 일단 착색되면 탈색되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색깔의 플라스틱을 함께 섞여 있어 재활용했을 경우 아무래도 재료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전기, 열, 약품에 강하므로, 이것을 보다 간단한 구조로 돌려 재활용하는 일이 대단히 어렵다. 또한 다른 소재와 함께, 혹은 서로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끼리 복합 사용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재활용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그만큼 일상 생활 속에서 다양한 용도로 밀착되어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쓰레기가 된 다음에는 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중에서 다양한 응용성과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염화비닐계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역시 독성 기체인 염화수소를 발

생시키며, 폴리아크릴로니트릴이나 우레탄과 같이 질소를 함유하고 있는 플라스틱은 연소 직전 단계인 열분해과정에서, 소위 청산 가스라고 불리는 맹독성 기체인 시안화수소를 발생시킨다.

이 밖에도 매립할 때나, 소각할 때 플라스틱에 함유된 많은 첨가물과 착색료 등이 유해물질로서 대기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 이렇게 플라스틱이 쓰레기로서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기 시작한 십수년 간의 일이다.

그렇다고 플라스틱을 간단하게 없애거나 대체 용품으로 바꾸기에는 우리 생활 속에 너무 깊숙히 자리잡고 있다. 현재 각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의 30% 정도를 플라스틱이 점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발생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약 80%가 본체가 아닌 포장재로 사용되고 있다.

다른 상품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된 플라스틱은 상품을 개봉하자마자 쓰레기가 되는 일회용품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문제를 지닌 플라스틱이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지금도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플라스틱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지 않으면 현재와 같은 생산소비체제가 지속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제조업자들도 재활용을 위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기는 하나 정부의 정책방향이 재활용보다는 감량화쪽으로 흐르고 있다.

3. 일회용품 줄이기 시민운동

정부는 쓰레기 문제에 있어 원천적인 감량, 재활용을 통한 재자원화, 소각이나 매립을 통한 적정 처리의 순서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정책을 입

안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시민사회운동에서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되어 자원순환형의 생산소비체제를 만드는 것이 심각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쓰레기 관리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갖추지 못한 현실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률을 확대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 모색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각이나 매립에 의존하는 현재의 정책으로는 눈에 보이는 쓰레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이 보다 더욱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토양, 대기 오염을 맞게 될 것이다.

일회용품 줄이기 시민운동의 힘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업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시민이나 기업이 각각 자기 책임을 자각하고 동참하여야 한다. 한 번 파괴된 생태계는 돌이키기 어렵고, 토양과 대기 오염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쓰레기 협의회는 일회용품 시민감시단에서 시작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민운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며, 나아가 포장 문제 등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연구조사하여 환경 파괴 요인을 걷어내는 운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러한 일은 편리함이나 경제성만을 추구하면서 파괴해 온 자연 환경을 지키는 최소한의 일일 것이다.

전세계적 관심사인 자원 낭비, 환경 파괴 원인으로써의 일회용품 사용 문제를 우리만 도외시킬 수는 없다. 이 일에는 전 국민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